

:: 성경에서 배운다 ::

:: 사랑이 머무는 곳에::

공동체 안으로

정규학교, 대안학교 등 제도권 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들을 홀로 교육시키는 것을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좋아하고, 원하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하며, 타인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비춰보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보완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교류가 없이 단지 지식적 교육만 홀로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성장도 더디고, 타인과 협력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서, 구역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류 혹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편

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족하기보다, 그 지식으로 다른 지체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식의 의미가 생기고,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큰 그릇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집회, 수련회와 같은 공동체 모임이 불편하거나 혹은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나의 만족으로 끝나고 있다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시다! 작은 섬김도 좋으니 용기 내어 주의 일에 자원하거나 혹은 불편한 몸, 여러 사정으로 봉사가 어렵다면,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작은 감사의 말이라도 건네봅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좋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고(잠14:4), 세 겹의 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얽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훨씬 빠르고, 견고하며, 탄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홀로 잔잔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들어감으로 그들과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나아가 민족의 영웅이자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기 내어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Good News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각가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조각으로, 문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 죽음을 보여주는 인물 조각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로맹은 여기에 이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대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생각에 잠긴 사람의 조각상을 문의 상부 중앙에 위치시켰고, 이는 고뇌하

는 시인 단테를 염두에 두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은 지옥문 앞에서 한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고심에 찬 생각을 하여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매한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영벌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100% 지옥행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면 몰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속의 잠언 ::

돈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업무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세계대학교로 진학하기 쉬워 국제 수준의 많은 국제학교가 있는 말레이시아는 영어권 유학의 최고 선택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 선진 교육의 현장에서 5년 전부터 관리형 유학업무를 해왔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남학생을 공항에서 만났고, 그 아이에게 적합한 국제학교를 찾아서 입학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두 번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인지도가 낮은 국제학교에 입학시켰고, 어느덧 그 학생은 고교졸업과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의 성적 결과에 아연실색했고, 출장지인 호치민으로 관리형 유학 중인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호치민에서 영어테스트를 치러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생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말레이시아 홈스테이 선

생님께 지금이라도 여태와 다른 방식의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어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을 비롯한 남은 학생의 부모님들께도 귀택의 자녀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상황이라고 통보하고, 5년 이상 해왔던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녀를 맡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준비를 시켰어야 하는데 현지 선생님만 의지한 실책에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고 모른 척 여태 했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달 수입 기백만 원을 포기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날마다 찾는 주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올곧은 양심과 정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학업무를 종료하고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돈보다 양심과 정직을 선택한 결정에 칭찬해주는 주님의 격려를 느낍니다.

'잘했다 오자유~!!'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이성적으로 처신하지 못한 미련함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인생의 고통임을 깨닫습니다.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늘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기도의 향아리를 잃어버린 실망으로 자책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이 평생 교훈이 되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양심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주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은 상실을 뛰어넘은 힘이 되어 더 큰 일을 준비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다져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돈을 심자!

“교사들에게 돈을 심어야 돈을 거둔다고 교육해라.”

지난 6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이 말씀을 하시며 6월 한 달 동안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심은 물질 내역 또한 공유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돈을 심기에 고정 수입이 전도사 활동비밖에 없는 내가 풍족하게 먹고, 입을 수 있는 거라 간증하라고 하셨다.

나는 평소 수입과 지출을 따로 적어놓지 않는다. 돈 계산을 하다 보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잔고 확인도 잘 안 한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처음으로 6월 한 달간 내가 얼마나 돈을 심었는지 계산해 보았다. 순종함으로 심은 돈이 36만원이었고, 십일조와 각종 헌금까지 포함시키니 45만원을 훌쩍 넘겼다. 내 전도사 활동비의 90%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간 것이다. 생각보다 액수가 커서 나도 놀랐지만,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풍족함을 누렸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부자집 딸로 오해한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입고, 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예수님께서 돈을 심으라 하실 때 돈을 심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늘 내 생각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 물질로 섬길 대상과 금액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얼마의 물질을 심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오직 예수님께 갚아달라고 구하게 된다.

지난 5월 기도원 집회 때 일오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야야, 앞으로는 기도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고, 바로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 돈을 심어서 더욱 풍성히 누리는데 내가 될 것이다.

곽신애 전도사



노량진(오전) 6시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누굴 모방할 것인가

“머슴을 살아도 정승집에서 살아라.”
 내가 내 아들들에게, 또 우리 교단의 젊은 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왜냐? 나보다 큰 자, 나보다 앞선 자를 모방해야 발전이 있고,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도 커지기 때문이다. 옛말에 ‘망아지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것은 큰 사람 밑에서 인물이 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고 모세를, 엘리야를 롤모델 삼아 모방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 ‘맞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이니 그들보다 큰 자가 아닌가. 예수님을 모방해야지.’ 나는 그 후로 예수님처럼 ‘에바다’하고 입에 손을 넣어 병어리를 고치고, 소경에게 침을 바르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성도들을 대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의 ‘명성(名聲)’이 높아졌다.
 사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큰 자를 만나야 한다. 긍정적인 자를 만나야 하고, 적극적인 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이 된다. 내 인생에 발전이 있다.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깨닫자. 수백만 달러를 내면서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 식사 한 번 하려고 줄을 서는 자들을 보고 깨닫자. 성경은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충성=최선’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원 집회 2주차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단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력(死力)을 다하는 것’임을 아침과 저녁 예배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곳에 어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을까. 목사님은 먼저 기도원에 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깨닫게 하셨다. “기도원에 오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러온 것이 아니다. 기도원은 첫째, 영적 목욕탕이다. 때를 벗겨내듯 죄와 거짓과 위선을 닦아내는 곳이다.

여기는 전지훈련소다. 프로선수 세계에 사는 1군 선수만이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2군 선수도 훈련을 잘 받으면 1군에 영입된다. 기도원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1군 선수가 된 자들이 많다. 세계 각국에서 왔던 주의 종들 중에서도 기도원에서 훈련 후 그 나라 최고의 목사가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어 목사님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즉 요구사항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만, 요구사항이 있는 조건부 사랑이다. 왜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막11:25)는 말씀도 잘 들여다보면 조건이 보인다. 먼저 용서해야 용서해준다는 말씀이다. 이는 남의 허물을 덮으라는 말씀이요, 남의 죄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3:7)는 말씀도 조건부 약속이다. ‘그리하면’이 조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단다(말3:10~12). ‘그냥 주지, 왜 십일조는 내래?’ 하는가? 그냥 주면 복의 주인이 자기로 말미암은 줄 알아 거만해지고, 거만은 패망의 길로 몰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것을 막고



2022 하계산상집회(8월 1일~1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둘째, 종합병원이다. 상처 입고 병든 곳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셋째로는 차량정비소. 차에 빨강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타고 다니면 사고가 발생한다.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얼른 재정비해야 사고를 면할 수 있다. 넷째, 기도원은 충전소요 주유소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방전된 상태요, 기름이 바닥난 상태, 곧 갈급한 상태가 되었다. 기도원에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영성을 100% 충전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는 마음에서다. 부모가 ‘이번 시험 잘 보면 컴퓨터 바꿔줄게.’ 하는 것은 공부 잘 하라는 격려이고 바람이듯,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같은 것이다.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준다는 말씀이다. 이는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죄짓지 마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자 조건을 건 것이다. 복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뤄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속히 달려올 것이다.” 설교 후 목사님은 병든 자를 단에 올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 소경,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으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났다.

신묘수 전도사



굳은 팔이 펴졌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남편과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18~32)



비유로 하시는 말씀 속 비밀을 알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늘 두려움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합니다.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1:7).

두려움은 삶의 임적 존재다

그러면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후부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9~10).

곧 두려움은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공포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마귀는 공포감만 조성했을 뿐인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론 ‘이렇게 사느니...’ 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가 계속 총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지만, 사실 마귀는 그저 공포탄만 쏘아댈 뿐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탄을 다 빼앗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3:8).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와 귀신들이 다 줄행랑치며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작 실탄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놀라고 겁을 먹어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빈총을 든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거만 하면 그것들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자 제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네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막4:40).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담대하라 하십니다. ‘매일 매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감싼 골목길로 내몰면서 ‘담대해아지, 왜 못 나가?’하고 욕박지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직전에 있는 자식에게 ‘겁쟁이 같은 놈 같으니...’ 이렇게 말만 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라면 ‘아빠가 같이 갈 거야, 걱정 마. 내가 해결해줄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해결해줄게.” 하십니다. 모세가 떠난 뒤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그 하나님은 감싼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고 하

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1~3)고도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나는 못 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며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가 정녕 너

와 함께 있으리라”(출3:12)는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 그 약한 겁쟁이가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까? 기드온은 두 번이나 양털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과감히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사 사자 입을 미리 막으셨고,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삼상17:45).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예

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의 훼방과 헐박에 담대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느4:14).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제가 세계에 나가 선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모함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썩어 버릴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별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는 말씀을 부여잡았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생각, 적극적 생각, 창의적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멋진 생각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도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민13:32~33)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잔뜩 겁먹은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만 나올 수밖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렘은 “그들은 우리 밤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9)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 눈에도 분명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멋진 인생을, 그 생각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 할렐루야!

:: 객원칼럼 ::

믿음의 경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뜨거웠던 시절, 지인의 권유로 읽게 된 책이 있었다. 펠 테리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오지(奧地)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말릴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니 도시처럼 물자가 풍족할 리 만무하다.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을 하려는데 포도주는 고사하고 비슷한 음료조차 없는지라 선교팀은 주전자에 물을 떠다 방 한가운데 놓고 돌려 앉았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성경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선교팀 리더인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각자 마셨다. 모두가 포도주가 되었다고 시인하며 주전자를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무사히 성찬식을 마쳤다.

그런데 저자인 펠 테리 선교사는 의문이 생겼다. 자신이 경험하기로 방에서 마셨을 때는 분명 물이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동료 선교사는 어땠는지 궁금하여 따로 불러 조용히 물어보았다. 아까 목사님이 주전자에서 따라주었던 것이 포도주가 분명했냐고. 그 선교사 왈, 그냥 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왜 포도주라고 말했냐고 하니 그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내 미각(味覺)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대답에 펠 테리 선교사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내 오감(五感)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는 단지 오감의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모든 생각, 지식, 경험, 의견, 주장, 자존심 등, 일체의 내 존재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며 그분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나아간다.

내 혀가 느끼는 감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그의 말, 진실로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돌이켜 내 경험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분쟁들조차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한다. “난 잘못된 게 없어요. 그가 문제인데 분명한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위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 있기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은가? 나를 버리고 나의 빈잔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자만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으리라.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믿음의 전염

여보게!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네. 그러나 걱정말게. 곧 종식될 걸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네.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전염이 잘 되기 때문이지. 어디 코로나뿐이겠나. 맹자 어머니는 사회적 분위기, 즉 환경도 감염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 일찍이 맹모 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실천하지 않았다. 장사 터에 가니 아들이 흥정하며 장사하는 흉내를 냈고,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곡하는 소리를 하여 서당 근처로 이사할 하니 그제야 아들이 공부를 하더라 해서 환경도 전염됨을 우리에게 알려줬지.

여보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골자는 이것이라네.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가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더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본받게 되기 때문이

야. 사도행전 24장에 바울로 인해 복음의 확산자가 늘자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염병이라고 했었네. 그러나 그는 염병을 옮긴 자가 아니라 믿음을 전염시킨 믿음의 확산자였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가? 코로나도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네.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 냄새를 풍기고, 응답패설을 뿜어낸다면 나는 믿음의 확산자라고 볼 수 없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직장 동료야, 친구가 알게 모르게 점차 복음화되고 있다면, ‘교회에 가볼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한다면 나는 확실한 믿음의 확산자라네.

복음은 믿음의 확산자에 의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일세. 그 중심에 자네와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불이 붙지 않고는 절대 남을 불붙일 수 없네. 내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불을 옮길 수 있지. 그러니 늘 내 안에 불이 활활 타도록 하게나. 그 성령의 불을 퍼칠 수 있도록. 朋友

중의 바람

주여

**나로 하여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되게 하시며
덕운 곳에 구름과 바람이 되게 하소서**

**추위와 굶주림의 옷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둔 밤 망망대에
등대지기 되게 하소서**

고달픈 인생들

목마른 사막길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

어둔 밤길 빛난 별

만민의 길뵈이 되게 하시다

부르시면 성도와 함께 들림받게 하소서

이것이 중의 바람입니다.

朋友

:: 생명의 말씀 ::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교회 성전은 벽돌공장 부지 일부에 자리 잡아 건축한 건물이다. 처음 목포에 발령받아 내려왔을 때, 교회 부속 건물 2층 사택에서 살게 되었다. 사택 건물과 바로 옆 벽돌공장 기계가 붙어서 새벽부터 종일 울려오는 기계의 굉음에 편히 쉴 수가 없었다. 또한 엄청난 공장 먼지로 창문도 열 수가 없으니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막 둘째를 임신한 사모는 오감이 예민해져서, 소음과 먼지에 고통을 호소했다. 안 되겠다 싶어 사택을 얻어 밖으로 나가고자 총회장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교회 이전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시며 번번이 거절하셨다.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벽돌공장을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꾸준히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째부터 이상한 변화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회 바로 앞 홍물스러웠던 고물상이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나가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사표지판이 붙고, 공사 차량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더니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단다. 1년 반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민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입주민들이 담합하여 시청에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결국 벽돌공장 사장이 찾아왔다. 이제 나가게 되었으니 작별 인사나 하자고 말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이뤄진 일들이다. 교회 주변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언젠가 조지물러의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다. 고아원생이 학교 가는 길이 산에 막혀 돌아가기 너무 힘들니 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했단다. 마가복음 11장 23절처럼 말이다.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도시계획이란 이름으로 트랙터와 불도저가 와서 산을 쓸어 없애버렸단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는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말의 문법을 바꿔서, 내가 하려는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26:3). 송직화 목사